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권민지 책임연구원(minji.kwon@bnkfg.com)

동남권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최근 5년간 (2011~16년) 30만4천명이 증가하였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6만2천명 증가에 불과하여 국내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 부문의 고용 없는 성장과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동남권 경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종사자수 증가율은 경기변동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간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부진한 모습도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전통적 주력산업인 제조업 대비 높은 고용 증가율을 시현하며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취업유발계수도 큰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동남권 서비스업 종사자수 30만4천명 증가 소분류 기준 115개 업종 중 상위 20개가 서비스업 고용의 59.4% 차지

동남권 전체 산업 종사자수는 2016년 기준 331만명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225만명으로 67.9%를 차지했으며 제조업 종사자수는 82만명으로 24.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2011~16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수가 42만3천명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30만4천명 늘어난 반면 제조업의 경우 6만2천명 증가에 불과하였다.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 부문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동남권 경제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남권 서비스업은 소분류(115개) 기준 상위 20개 업종의 종사자수가 59.4%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음식점업의 경우 2011년에 이어 2016년에도 서비스업 고용의 11.0%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2011년 2위, 3위를 기록했던 육상 여객 운송업과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2016년 각각 4위와 6위로 하락하였다. 종합 소매업은 2011년 5위에서 2016년 7위로 내려가면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교육 관련 서비스업도 대부분 순위가 하락하였다. 초등 교육기관의 경우 9위에 머물렀으나 중등 교육기관은 12위, 일반 교습 학원은 18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한편 보건 관련 서비스업인 병원과 의원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병원은 2011년 4위에서 2위, 의원은 14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고용도 대폭 확대되면서 2016년 3위, 5위로 상승하여 5위권 안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도 동기간 13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동남권 서비스업 종사자수 상위 20대 업종¹⁾

(명, %)

2011년			2016년		
순위	업종	종사자수	순위	업종	종사자수
1	음식점업	214,106 (11.0)	1	음식점업	247,363 (11.0)
2	육상 여객 운송업	69,274 (3.6)	2	병원	94,692 (4.2)
3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69,070 (3.6)	3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1,359 (3.6)
4	병원	67,428 (3.5)	4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78,700 (3.5)
5	종합 소매업	60,353 (3.1)	5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4,124 (3.3)
6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57,473 (3.0)	6	육상 여객 운송업	72,800 (3.2)
7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53,474 (2.7)	7	종합 소매업	69,760 (3.1)
8	중등 교육기관	52,832 (2.7)	8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59,352 (2.6)
9	초등 교육기관	52,670 (2.7)	9	초등교육기관	56,941 (2.5)
1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49,967 (2.6)	10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54,408 (2.4)
1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49,249 (2.5)	11	의원	52,358 (2.3)
12	일반 교습 학원	47,246 (2.4)	12	중등 교육기관	52,274 (2.3)
13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45,699 (2.3)	13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49,486 (2.2)
14	의원	43,869 (2.3)	1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8,959 (2.2)
15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0,852 (2.1)	15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46,798 (2.1)
16	보험업	40,369 (2.1)	16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44,705 (2.0)
17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40,124 (2.1)	17	도로 화물 운송업	43,026 (1.9)
18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35,880 (1.8)	18	일반 교습 학원	42,014 (1.9)
19	도로 화물 운송업	34,336 (1.8)	19	보험업	39,203 (1.7)
20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33,078 (1.7)	20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39,157 (1.7)
상위 20대 업종 합계		1,157,349 (59.5)	상위 20대 업종 합계		1,334,643 (59.4)
서비스업 전체 합계		1,944,652 (100.0)	서비스업 전체 합계		2,248,653 (100.0)

주 : 1) 제9차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2) ()는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수 대비 해당 산업분류 종사자수 비율

자료 : 통계청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종사자수 증가세는 울산이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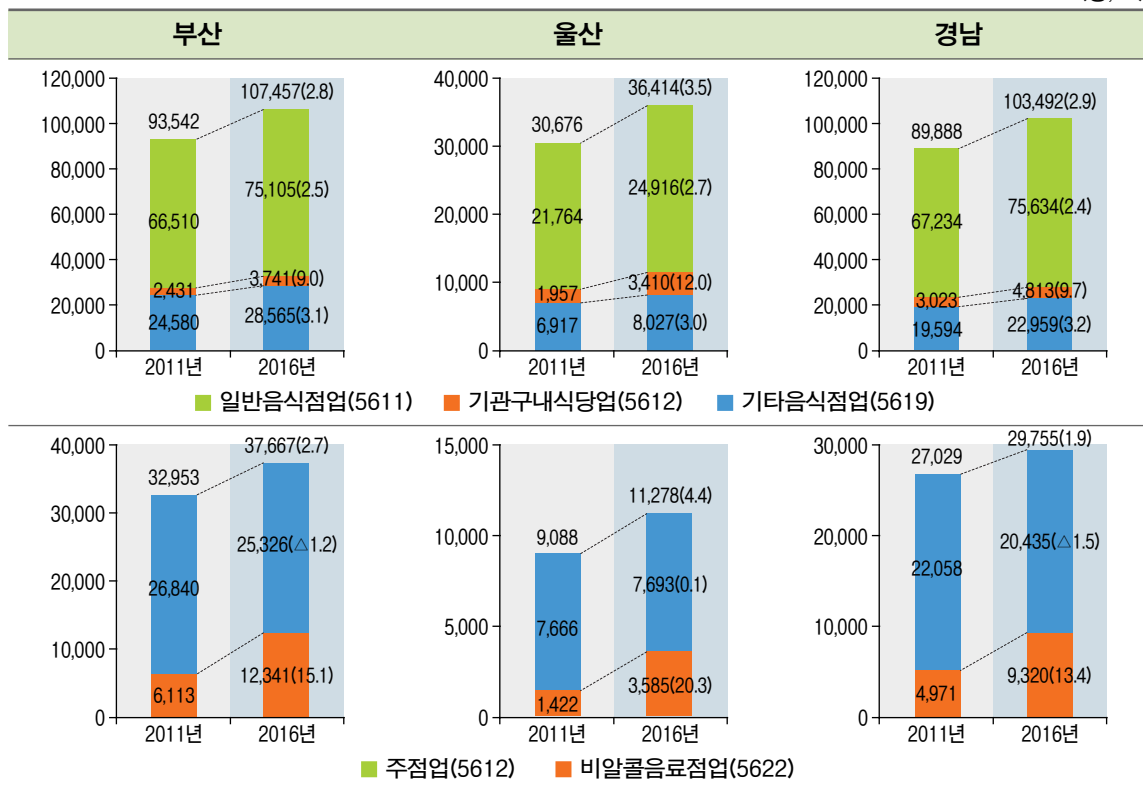
동남권 음식점업 종사자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9%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울산(3.5%)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기관구내식당업의 고용이 부산 9.0%, 울산 12.0%, 경남 9.7% 등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늘어났다.

주점업의 경우 울산은 종사자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부산과 경남은 각각 -1.2%, -1.5% 감소하였다. 기관구내식당업의 고용 증가와 주점업의 감소 현상은 경기불황의 여파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한편 모든 지역에서 비알콜음료점업의 종사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커피전문점, 주스전문점 등의 사업체가 크게 늘어났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권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종사자수

(명, %)



주 : ()는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종합 소매업 고용은 부산이 가장 낮은 증가세

종합 소매업은 동남권 전 지역에서 종사자수가 늘어났으나 부산은 연평균 1.6% 증가에 그쳐 울산(4.1%)과 경남(3.9%) 대비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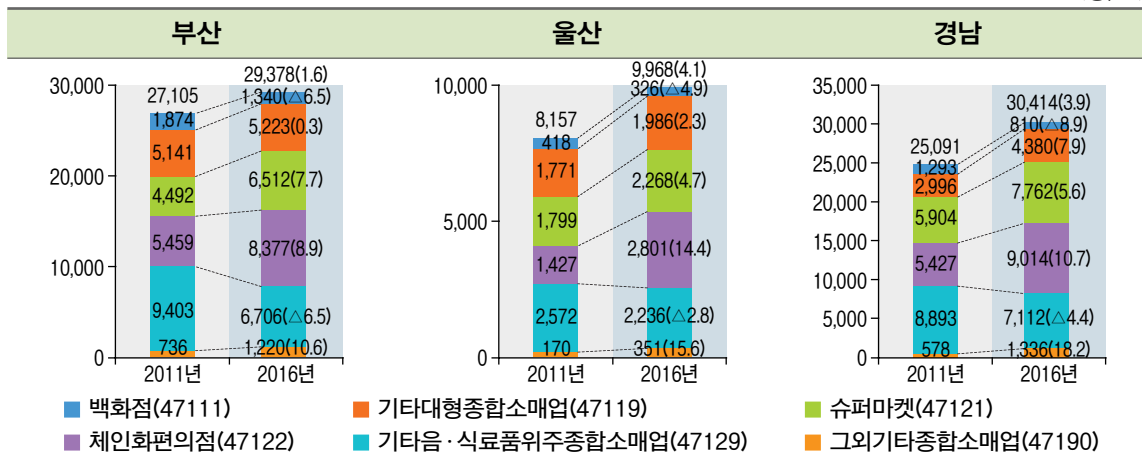
백화점 종사자수는 모든 지역이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산시스템 발달과 외주용역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고용은 점포 신설의 영향으로 경남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지역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슈퍼마켓과 체인화 편의점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종사자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개인 슈퍼 등 165㎡ 이하 규모의 사업체가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등으로 다수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동남권 슈퍼마켓 사업체 수는 2011년 1,419개에서 2016년 1,910개, 체인화 편의점은 3,309개에서 5,140개로 증가한 반면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동기간 12,386개에서 9,703개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

동남권 종합 소매업 종사자수

(명, %)



주 : ()는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통계청

1) 동남권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사업체수 변화

(개)

구분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동남권	1,419	1,910	3,309	5,140	12,386	9,703
부산	513	752	1,411	2,014	5,359	3,940
울산	240	293	400	716	1,476	1,239
경남	666	865	1,498	2,410	5,551	4,524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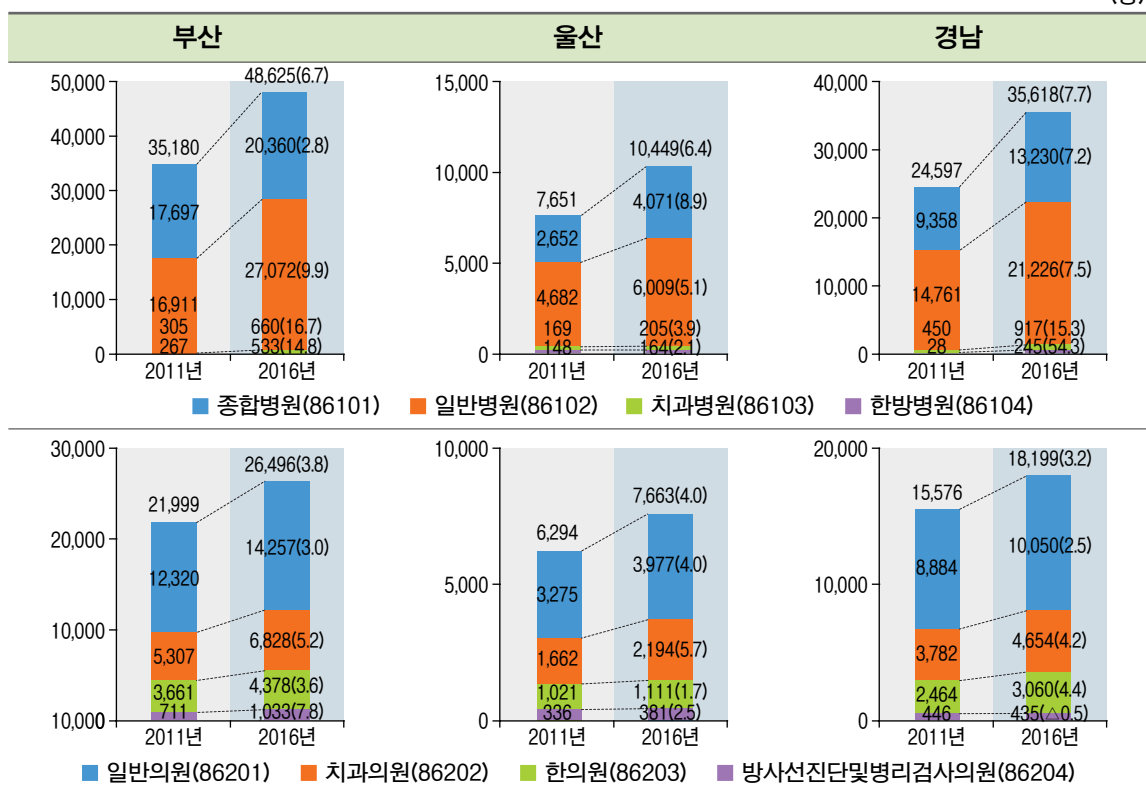
병원은 경남, 의원은 울산에서 높은 고용 증가세 시현

병원과 의원 종사자수는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병원²⁾의 경우 부산은 치과와 한방병원 그리고 일반병원이 높은 고용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종합병원은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울산은 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경남도 종합병원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여 울산 및 경남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원³⁾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부산 3.8%, 울산 4.0%, 경남 3.2%로 조사되어 동남권 모든 지역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병원, 의원 종사자수



주 : ()는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통계청

2)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수는 부산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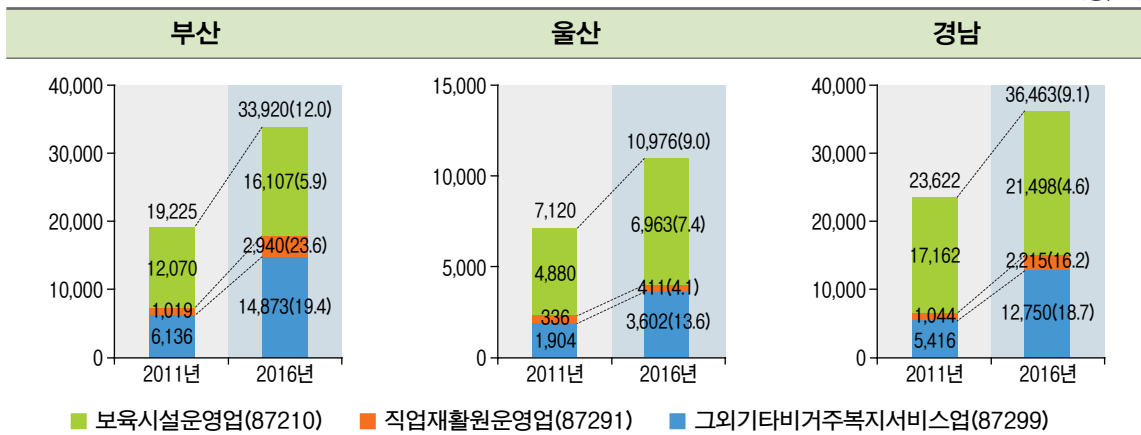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수는 동남권 전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부산의 경우 연평균 12.0%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고 직업재활운영업과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의 고용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울산 및 경남의 종사자수도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고용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각각 9.0%, 9.1%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고용 증가는 정부 주도의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의한 복지시설 확대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동남권의 사회복지시설은 10,883개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24,065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보육시설도 동기간 5,678개에서 6,25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동남권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수

(명, %)



주 : ()는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통계청

4) 동남권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변화

(개)

구분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동남권	10,883	24,065	5,678	6,254
부산	2,606	2,814	1,689	1,971
울산	854	977	754	934
경남	7,423	20,274	3,235	3,349

자료 :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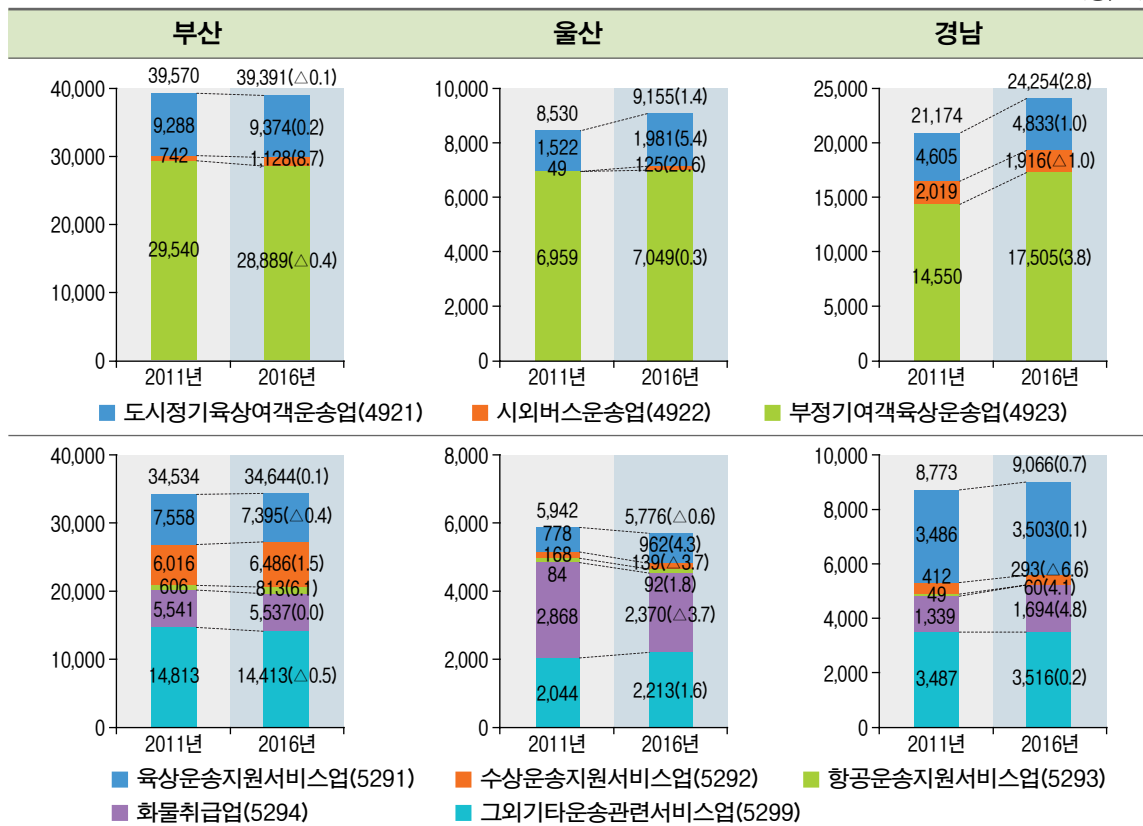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고용은 부산 및 울산에서 부진

육상 여객 운송업 고용은 부산의 경우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중 택시 운송업 종사자수⁵⁾가 크게 감소하면서 줄어들었다. 반면 경남은 택시 운송업 증가, 울산은 시내·시외·전세버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울산의 종사자수가 감소한 가운데 부산과 경남도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해운업 부진에 따른 한진해운 파산 등의 영향으로 지역 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의미한다.

동남권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수

(명, %)



주: ()는 연평균 증가율

자료: 통계청

5) 동남권 택시 운송업(49231) 종사자수 변화

(명)

구분	2011년	2016년	증감
부산	28,520	27,369	△1,151
울산	6,441	6,173	△268
경남	13,466	15,846	2,38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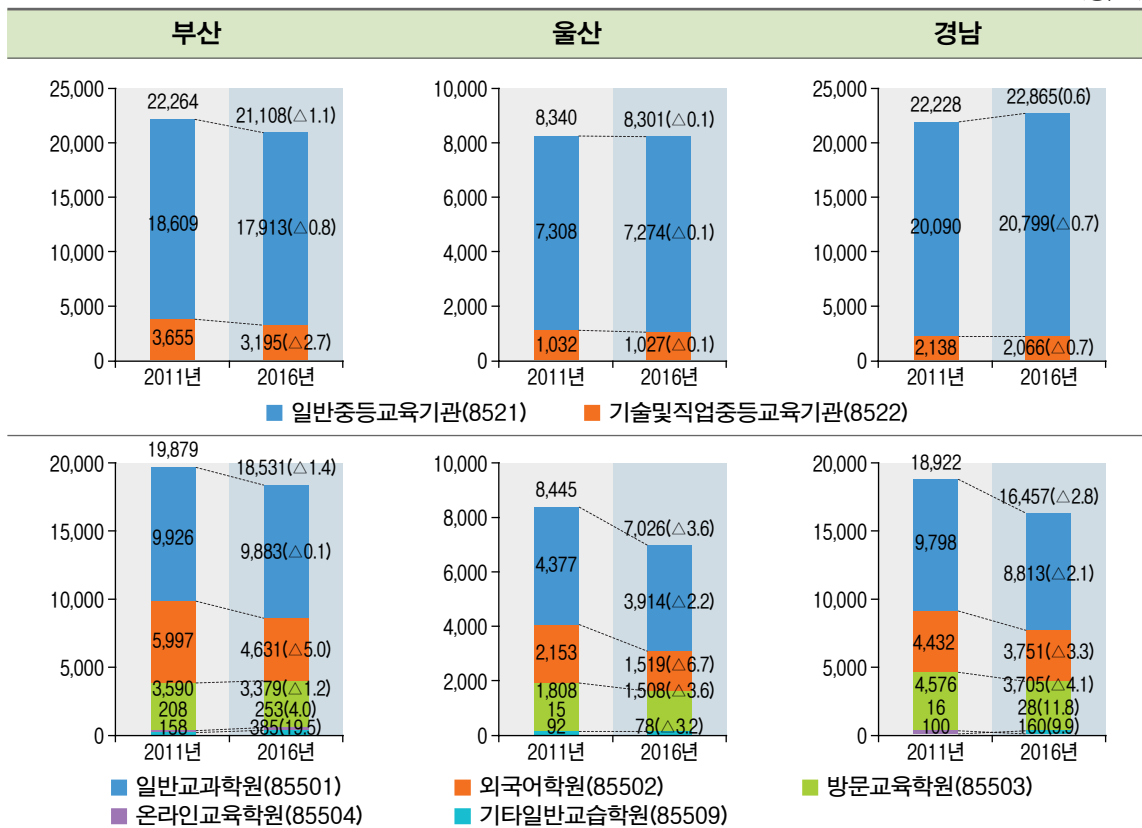
중등 교육기관 종사자수는 부산, 일반 교습학원은 울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중등 교육기관 종사자수는 경남을 제외한 부산과 울산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일반 교습학원의 경우 동남권 전 지역에서 종사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등 교육기관 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5~19세 청소년 인구⁶⁾ 변화를 살펴보면 부산은 2011년 239,260명에서 2016년 190,317명으로 48,943명 감소하였고 동기간 울산은 13,892명, 경남은 24,69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중등 교육기관, 일반 교습학원 종사자수

(명, %)



주 : ()는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통계청

6) 주민등록인구 현황 기준 청소년 인구(15~19세) 변화

(명)

구분	2011년	2016년	증감
부산	239,260	190,317	△48,943
울산	91,249	77,357	△13,892
경남	235,061	210,364	△24,697

자료 : 통계청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

최근 5년간 동남권 서비스업 종사자수 증가율은 경기변동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간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부진한 모습도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전통적 주력산업인 제조업 대비 높은 고용 증가율을 시현하며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동남권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원이 유발하는 취업자수)가 제조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부산의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이 18.8명으로 제조업 11.0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 및 경남의 경우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이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은 취업유발 효과는 높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므로 사업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취업유발계수도 큰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IT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에 대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업의 세계화 전략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남권 업종별 취업유발계수¹⁾

(명/10억원)

구분	부산	울산	경남
제조업	11.0	6.9	9.1
서비스업	18.8	18.0	20.2
도소매서비스	21.3	21.8	26.0
운송서비스	14.7	11.4	23.4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5.8	25.4	29.0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3.3	13.6	13.9
금융 및 보험서비스	12.5	13.1	14.2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	7.5	10.0	10.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17.8	12.5	14.9
사업지원서비스	36.7	29.7	26.9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10.2	11.1	12.0
교육서비스	18.9	17.7	18.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8.7	19.4	21.6
문화 및 기타 서비스	28.3	30.3	30.7

주 : 1)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정품목 최종수요 10억원이 전 지역·전 산업에 유발하는 취업자수

자료 :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

[참고문헌]

- 심혜정,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 국제무역연구원, 2017.10
- 윤성민 · 박상호, “지역경제의 서비스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울산본부, 2015.12
- 이영호 · 박종익, “최근 부산 · 울산지역 고용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부산본부 · 울산본부, 2018.1
- 통계청, www.kosis.kr
- 한국은행,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2016.1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17.12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18.3
- 행정안전부, 「2011 한국도시통계」, 2013.01.02
- 행정안전부, 「2016 한국도시통계」, 2017.12.27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대한민국 5대 금융그룹



51년 길고 곧은 역사



전국 및 해외로 뻗은 영업망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레드우드 처럼
대한민국 금융생태계에 가장 높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레드우드는 100m 이상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입니다. 한 거목에는 61개의 가지와 200개 이상의 2차 용동이 있고 일관 토양 220kg에 달하며, 잎의 총 무게는 1.5톤이 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생장이 빠른 생명체로 화창한 날씨 속에 묘목이 매년 1.8m씩 자랍니다. 그 높은 키를 지탱하기 위해 숲을 이룬 결의 다른 레드우드들과 뿌리를 공유하며 300년간 100m 이상의 거목으로 자라납니다. 레드우드의 규모는 수목의 모든 기류를 갱신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레드우드 종에는 수령 2,000년을 넘긴 나무도 있습니다. 나뭇결이 아름답고 색채가 고르며 도장이나 착색 효과가 좋아 무늬목, 목재 제품, 문이나 창틀, 벽판의 제작 등에 쓰고 부식에 강해 옥외용 가구 목재로도 쓰이는 등 인간에게 헌신하는 나무입니다.

BNK 금융그룹

BNK BNK금융지주

제2018-04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8년 4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